

# SNS상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도: 가해자 관점으로

## Privacy Intrusion Intention on SNS: From Perspective of Intruders

이 에 덴 (Eden Lee)      충북대학교 국제경영정보과학 협동과정  
김 상 희 (Sanghui Kim)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서 동 백 (DongBack Seo)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신저자

### 요 약

요즘 보편화된 SNS 사용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더 쉽고 빠른 개인정보의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SNS상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와 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프라이버시 연구는 대부분 피해자 혹은 피해사건의 분석이었으나,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를 작성과 유포라는 좀 더 세분화된 개념으로 나누고, 동기이론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반응비용)과 내적 요인(인지된 즐거움, 침해 피해경험, SNS 징벌행위, 침해 가해경험)이 각각 작성과 유포 침해의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인 반응비용은 작성과 유포침해의도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다. 내적요인은 대체적으로 외적요인보다 더 큰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그 중 가해경험은 작성과 유포 침해의도 둘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인지된 즐거움 또한 작성과 유포 침해의도에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피해경험은 작성과 유포침해의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SNS 징벌행위는 유포침해의도와 약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구분없이 표현되어 온 프라이버시 침해 가해자들은 정의감이나 과거 관련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침해 가해행위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고, 또한 과거에 가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정보침해에 관해 보다 더 뚜렷한 기준과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프라이버시, 침해의도, 동기이론, SNS

## I. 서 론

SNS 사용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편화된 현상이고, 앞으로도 그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서동백, 김성재, 2017).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

터넷 이용자의 약 60%는 프로필 기반의 SNS를 이용하고 하루에도 이에 여러 번 접속할 만큼 SNS 사용은 일반적인 현상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5a). SNS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프로필이라는 형태로 공개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를 바탕으로 SNS는 폭발적 성장을 이뤄왔다(이진규, 2011).

그러나 개인정보를 공유하며 관계를 맺는 SNS의 소통방식은 개인의 사생활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킬 위험이 있고(조성은 등, 2014), 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가 수집, 재생산, 유포 될 가능성을 높게 한다. 이를 반영하듯 SNS 이용자의 70% 이상은 개인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노출되고 유포되는 것을 SNS의 가장 큰 피해유형으로 꼽았는데(한국인터넷진흥원, 2015b), 이미 이용자 사이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우려가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보주체는 이를 곧바로 인지하기 어렵고, 인지를 하더라도 개인의 피해사실이나 해당 SNS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힘들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사업자가 고의 혹은 과실 없음을 증명하도록 했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윤현석, 장규원, 2014). 개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신용정보 도용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등 심각한 범죄를 불러올 수 있다(Gross and Acquisti, 2005; 윤현석, 장규원, 2014). 이를 반영하듯 지금까지 공개적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 모델을 유지해오던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익명로그인 기능이나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중요한 수익 모델로 설정하기 시작했다(Miners, 2014). 이는 요즘 사회에 퍼지고 있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와 관심이 실제로 기업의 전략에 반영된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SNS 사용자가 직면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었다.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의 원인을 SNS 제공 기업의 부적절한 정보관리 혹은 기술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연구(성민경, 정연돈, 2012; 윤지섭 등, 2016), 법적인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석하는 연구(손형섭, 2014; 양성은, 2013; 허진성, 2010), 혹은 프라이버시 염려와 SNS 지속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안수미 등, 2014)들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은 주로 피해자였고 비교적 지엽적인 주제를 가지고 실시된 연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프라이버시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일컫는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행위인데 반해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사후에 관한 연구에서 벗어나 가해행위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요소들이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해자 측면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왜 일어나는 지에 관하여 동기 이론(Motivation Theory)을 통해 SNS 이용자 사이의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하고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하려 한다. Fishbein and Ajzen(1975)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행위 의도이다. 행위 의도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의도가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어떤 특정한 행동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믿을 때, 그리고 그 행위를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된다(Deci and Ryan, 1987; Heider, 1958), 특정 행위를 하는 원인에 대한 의문은 행위의도 파악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위에 관한 연구는 그 행위를 측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직접적 행위측정을 대신하여 행위의도를 측정하고 분석한다(Krebs, 1975). Atkinson(1964)의 연구에 따르면 의도란 어떤 특정 행위에 참여하기 위한 결정인데,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욕구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한 욕구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Deci and Ryan, 1987). 본 연구에는 SNS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에 대한 의도가 어떤 동기로부터 촉발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침해행위의 의도를 예측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가해자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SNS와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는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 즉, 사적 공간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개인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완전히 개방된 장소에서 타인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접근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Westin(1968)은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과 소통할 때 개인적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를 주장하였다. 이 주장을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라고 하고, 오늘날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Westin이 주장한 정보 프라이버시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란 전통적 프라이버시 개념에서 한 층 더 적극적이고 주관적으로 본인의 정보 공개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주체성을 갖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Westin, 1968).

그러나 SNS 환경 하에서는 이러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정보 프라이버시 권리를 실현시키기

어렵다.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최초 시점에서는 이용자의 주체적인 정보 통제권 행사가 가능하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거치며 이 정보는 어느 정도의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노동일, 정완, 2010). SNS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개인 정보 공개는 필연적이지만 이용자들 또한 스스로 적절한 공개범위를 설정하고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 기울이는 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이진규, 2011). 정보주체 스스로가 공개한 정보가 어떤 이용자에 의해 열람, 공유, 그리고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경로는 완벽히 통제되기 매우 힘들다.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 속에서는 타인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작성과 유포 행위가 자유롭게 이뤄지기 때문에 SNS 상에서는 적극적인 정보 프라이버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실제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정보주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신상 털기, 마녀사냥 식 여론몰이와 사이버 폭력 등이 SNS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작성과 그 정보의 이뤄지며 이용자 간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와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이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2)가 정보통신망에서 문언·음향·화상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이버권리침해’로 정의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도 SNS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우리나라에서는 분야별 혹은 상황별로 교육법, 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규율하였다. 그러나 개별법 체계하에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기본법안의 제정논의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에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김운석, 2011). 이는 2017년 현재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발전하고 있다.<sup>1)</sup> 개인정보보호법의 등장은 개별법 체계에서 발생하던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별 특별법과의 중복규제와 불균형에 관한 논의(조명근, 이환수, 2017)나 법조문의 불명확성과 해석 등에 관한 문제가 아직 발생하고 있다(김일환, 성재호,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SNS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아직까지는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분야에 심도 깊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허진성, 2010).

SNS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타인의 정보를 열람, 공유하는 행위는 일상적이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는 행위지만, 그것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사이버범죄 혹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인격권, 형법으로 규정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많은 기존연구에서는 가해행위와 피해결과를 혼용했고 다소 포괄적으로 서술해왔다. 경영정보 분야에서 프라이버시 관련연구들은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을 뿐,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침해원인 등과 같은 가해 행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안수미 등, 2014).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를 정확히 알기 위해 구체적인 가해 행위와 그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손민지(2013)의 연구에 따르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결과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이 분류를 활용하여 SNS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를 타인의 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하는 작성과 유포라는 두 가지 종류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일반 SNS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법적인 문제에서도 행위의 정확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두 기준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집중하여 SNS상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개된 SNS 계정에 게시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이용한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SNS상에서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프라이버시 침해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초창기 SNS는 정보공유의 장으로써 혁명적 수단으로 여겨졌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순기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는 SNS 이용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본래의 사용목적과 순기능과는 매우 동떨어진 역기능이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개인의 인식과 의도된 행위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 측면도 포함해서 찾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이용자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SNS의 사용방법을 익히고 소통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기능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본인에 맞게 적절히 전유(appropriateness)하는 정도는 정보시스템 사용의 유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이용규, 권정일, 2006),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은 해당 사용자들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되어 그 의미와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Orlikowski and Robey, 1991; 이용규, 2008). 즉, 개인이 SNS를 이용하는데 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모든 이용자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SNS 프라이버시 침해행위 또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소통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SNS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침해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이외에도 그가 속한 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2017, available at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liBgcolor0>.

## 2.2 개인정보침해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뜻한다(양성은, 2013). 개인정보침해란 위와 같은 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 즉 도용된 것을 의미한다. 윤현석, 장규원(2014)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정보침해의 유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저장, 둘째로 개인정보의 가공, 셋째로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유통이 있다. 정보를 저장하거나 보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집 과정을 거치는데, 정보제공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수집과 저장은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수집과 저장단계에서 이미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획득한 이후에는 가공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정보의 잘못된 편집이나 재생산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법률의 규정범위를 초과한 가공은 침해에 해당한다. 정보주체와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있거나 그와 유사한 신뢰관계에서 파생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의 가공이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또는 가공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제 3자에게 알리는 것을 개인정보의 유통이라고 한다(윤현석, 장규원, 2014).

개인정보침해행위의 경우에는 그 정보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처벌의 적용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수집 혹은 관리대상인 정보는 정보자기결정권이 그 보호법익이지만, 개인비밀정보는 그 사람의 사생활보호가 보호법익이기 때문이다(양성은, 201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혹은 누설할 경우나 그 개인정보가 누설되었음을 알면서도 영리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사처벌규정).

## 2.3 동기이론

동기(Motivation)는 인간의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에 하나로 인간의 행동을 추동하고 지속하게 하는 요소이다. 또한 이는 행동을 장려하고 지속하게 하는 요소로 행동 유발, 행동의 방향 결정,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의 조절과 강화 등의 기능을 한다(변영계, 2005). 동기와 관련하여 그 동안 수많은 연구가 이뤄졌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동기관련 연구는 내적, 외적 동기의 분류이고, 이후 이곳에서 파생된 연구가 많이 생겨났다(Deci, 1975; Deci and Ryan, 1985; Lepper and Greene, 1978; Malone and Lepper, 1987). 이 구분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가지는 다양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 그리고 실용적 관점에서 중요하다(Deci and Ryan, 1985).

외적, 내적 두 요인 모두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람들은 각 동기로부터 서로 다른 가치를 얻을 것이라고 인지한다. 외적 동기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보상을 얻는 것과 같은 특정한 목표를 가진 동기라면, 내적 동기는 보상을 바라기 보다는 행동 자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Davis et al., 1989; Davis et al., 1992). 다시 말해, 외적 동기는 행위를 통한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종류로는 보상, 사회적 인정, 죄의식이나 불안, 처벌 회피 등이 있다. 이는 특히 행동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Deci and Ryan, 2000). 반면 내적 동기는 전자와는 다르게, 행동 그 자체를 위해서 혹은 행동으로 인한 즐거움이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이는 행위 그 자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보상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이유를 설명한다(Deci and Ryan, 1985). 또한 내적 동기에 따른 행동은 외적 동기로부터 촉발된 행동에 비해 더 높은 성취도를 가져오기도 한다(Gottfried, 1990). 이에 따라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에 비해 더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도 SNS 프라이버시 침해 가해자의 외적 동기 보다는 내적 동기에 좀 더 주안점을 두었다. 외적 동기에 의한 가해행위는 가해자가 목표로 하는 보상 혹은 가치를 차단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대비 혹은 예방할 수 있는 데 비해 내적 동기에 의한 가해행위는 그 대비 또는 예방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막연하고 어렵다. 내적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막연해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적 동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일견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는 이유는 관계개발이나 정보의 습득 등, 외적 동기가 작용한 것이라 보기 쉽지만, 꼭 어떠한 혜택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전통적인 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주로 외적 동기에 의해 이를 사용한 것에 반해,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과 같이 그 행위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목적을 갖는 내적 동기에 의한 사용이 두드러진다(이용규, 2008). 유명인의 SNS를 해킹하거나 타인의 SNS를 스토킹하는 행위(이민정, 2017; 정현목, 2016), 혹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김용욱, 2017) 외부적인 보상보다는 내적 동기에 의한 SNS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SNS상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도 그로부터 얻고자 하는 혜택이 있을 때 (외적 동기)와 그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때 (내적 동기)를 나누고 특히 후자에 더 집중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III. 연구모형 및 가설

외적 동기는 정보기술로 얻은 혜택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내적 동기는 정보기술의 사용의 즐거움을 정서적으로 느끼게 한다(Venkatesh, 2000). Lin and Lu(2011)은 SNS 이용자가 인지하는 혜택 중 외적 동기를 유용함(Usefulness)으로, 내적 동기를 즐거움(Enjoyment)로 분류하였다. 즉, SNS 활용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인지하면 외적 동기가, 합리적 판단보다는 활용 그 자체에 재미를 느끼면 내적 동기가 발현되어 SNS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NS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또한 가해자가 합리적으로 그 혜택을 인지하면 외적 동기가,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느낀다면 내적 동기가 발현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적 동기 요인으로는 가해자의 가해의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 반응비용을 선택하였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외적 동기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한 것이다. 내적 동기 요인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에 대한 즐거움, 과거의 침해 피해경험, 사회적 징벌행위, 과거의 침해 가해경험 이렇게 4가지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 논문은 프라이버시 침해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동기 요인을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려고 한다. 다음은 각 동기 요인과 가설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 3.1 외적 동기와 행위의도 간의 관계

행동을 하는데 있어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은 모두 비용의 개념으로 인지가 되고, 이는 인간이 행동하는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행동과학에 따르면,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며, 손해는 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행위자는 그 행위에 소모되는 시간, 비용, 불편함, 노력과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Rosenstock *et al.*, 1994; 지범석 등, 2011). 일반적으로 행위에 대한 이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이 높을 경우 행위를 하지

않는다(Rosenstock *et al.*, 1994). 이렇게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반응비용(Response Cost)’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인이 인지하는 기회비용을 의미한다(Ifinedo, 2012; Rogers, 1983). SNS상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할 때 소요되는 반응비용은 가해자의 침해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a: 타인의 프라이버시 작성행위에 대한 반응비용은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작성행위)와 부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 H1b: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행위에 대한 반응비용은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유포행위)와 부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 3.2 내적 동기와 행위의도 간의 관계

### 3.2.1 인지된 즐거움

내적 동기는 외부적인 강화요인이 없어도 그 행동에 대한 즐거움이나 흥미로 행위를 하게 만드는 동기이다. 즐거움은 어떤 행위에 임하는 태도 및 그 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Childers *et al.*, 2001). 행위 자체에서 파생되는 즐거움, 만족과 같은 감정적 요소들이 행위를 유발하는 내적 동기로 작용하고, 이는 외부의 보상 없이도 행위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위 의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Deci and Ryan, 1985). 이렇게 개인이 특정 행위와 관련해 느끼는 감정을 Hidi(1990)는 개인적 흥미요인으로 보았는데, 이는 개인의 행동 및 그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SNS에서 타인의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포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즐거움을 느낀다면, 지속적으로 그 행위를 하고 싶은 동기를 가질 수 있고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따른 H2는 아래와 같다.

- H2a: 타인의 프라이버시 작성행위에 따른 즐거움은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작성)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 H2b: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행위에 따른 즐거움은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유포)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 3.2.2 SNS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경험

개인이 겪은 경험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보안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변수이다(Gupta and Kim, 2007). 경험에는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이 있는데, 직접경험을 통해 생성된 태도는 간접경험에 의한 것보다 훨씬 큰 태도-행위 일관성을 촉진한다(Kraus, 1995). 즉 직접경험으로 특정 태도를 갖게 된 사람은 간접경험으로 형성한 태도보다 훨씬 더 그 태도와 동일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경험은 과거에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서 노출되거나 유포되어 사생활 침해를 겪은 것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의미한다(Bansal *et al.*, 2010).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거나 개인정보가 폭로 혹은 노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매우 강한 염려를 갖게 된다(Smith *et al.*, 2011).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피해경험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또한 영향을 미친다(Bansal *et al.*, 2010). 이에 따라 SNS를 이용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들은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침해하는 문제에 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목격할 때 대리적 각성이 유발되고, 이 각성이 고통을 받는 당사자로부터 발생했다고 인지하면 공감을 느끼게 된다(Baston *et al.*, 1978; Hoffman, 1977). 공감을 통해 사람들은 타인을 도와주려는 이타적 행동을 더 하게 되고,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은 덜 하게 된

다(Eisenberg and Miller, 1987; Wentzel *et al.*, 2007). 따라서 과거 프라이버시 침해(작성)를 당해본 피해자들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자기와 같은 류의 다른 피해자를 보면 그 고통을 인지하고 공감할 것이다. 이런 피해 경험은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H3a와 H3b는 아래와 같다.

**H3a:** SNS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작성)경험은 프라이버시 침해(작성)의도와 부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H3b:** SNS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유포)경험은 프라이버시 침해(유포)의도와 부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 3.2.3 SNS 징벌행위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관찰했을 때 그들과 공감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공감적 정서는 사람들에게 도움행동을 유발하게 한다(Baston *et al.*, 1978; Hoffman, 1977). 도움행동이란 ‘타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이익을 다소 포기하고서라도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일컫는다(김용훈 등, 2012). 사람들이 SNS를 사용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부도덕한 이들을 가해자로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 가해자를 일반적인 SNS 사용자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 즉, SNS에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생각하며 도움행동의 일환으로 가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을 비난을 하거나 징벌의 차원에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H4a와 H4b는 아래와 같다.

**H4a:** SNS 징벌행위(작성)는 프라이버시 침해(작성)의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H4b:** SNS 징벌행위(유포)는 프라이버시 침해(유포)의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 3.2.4 SNS 프라이버시 침해 가해경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가해행위는 몇 가지 부분에서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예를 들어 익명성, 비대면성, 상시성, 신속성, 광범위한 확산성 등의 사이버 괴롭힘의 특징은 SNS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는 가해행위 또한 갖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익명성과 비대면성은 피해자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되고 이는 더 쉬운 폭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Kowalski *et al.*, 2008). 이에 따라 H5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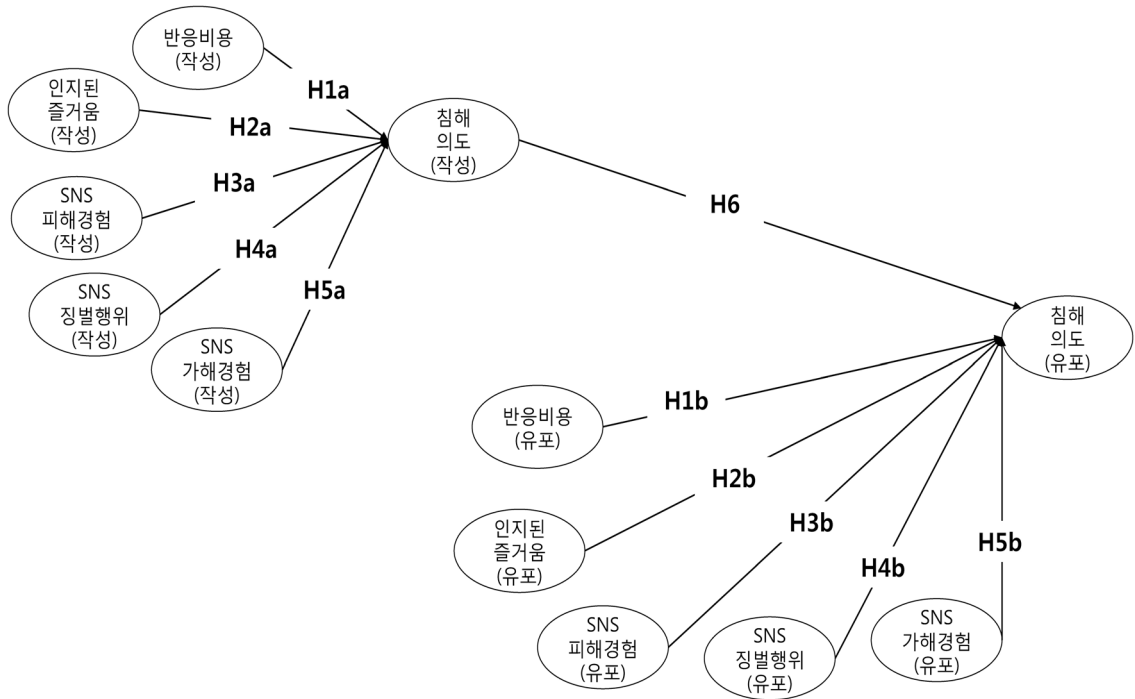
**H5a:** SNS 프라이버시 침해 가해(작성)경험은 프라이버시 침해(작성)의도와 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H5b:** SNS 프라이버시 침해 가해(유포)경험은 프라이버시 침해(유포)의도와 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 3.2.5 SNS 프라이버시 침해의도

SNS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작성과 그 정보의 유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유포 침해 행위는 본인이 직접 타인의 개인정보를 작성 및 유포하는 것과 이미 타인에 의해 작성되어 있는 게시물을 유포만 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전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게시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SNS상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정보를 유포만 하는 행위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작성침해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작성 침해 의도뿐만 아니라 유포 침해 의도도 가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H6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가설 요약

H6: SNS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작성)는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유포)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모든 가설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IV. 연구방법

##### 4.1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연구 주제인 SNS상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출을 실행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택하였고 7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응답자의 경험(experience)에 대한 설문 문항들(예: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perception)을 묻는 설문문항들(예: 인지된 즐거움, 반응비용), 일반적 행위(예: 징벌행위) 그리고 의도(예: 침해의도)로 구성되었다. 설문대상은 국내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2016년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네이버 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배포하였고 총 22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18개의 답변은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202개의 자료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징벌행위(유포)와 징벌행위(작성)를 측정하는 문항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징벌행위(유포)와 징벌행위(작성)에서 각각 하나의 측정문항을 제거하였다. 징벌행위 작성 3과 징벌행위 유포 3이 제거된 문항들이고, 이는 <부록> 3. 측정문항에 표시 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Smart PLS(Partial Least Square) 2.0을 통해 분석되었고, 수집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89	44.06%
	여성	113	55.94%
연령	10대	8	3.96%
	20대	175	86.63%
	30대	19	9.41%
SNS 사용빈도	매일, 1회 이상	163	80.69%
	2~3일 이내, 1회 이상	21	10.4%
	일주일 이내, 1회 이상	13	6.44%
	한 달 이내, 1회 이상	5	2.48%
SNS 1회 접속 시 이용시간	30분 미만	82	40.59%
	30분~1시간 사이	63	31.19%
	1시간~1시간 30분 사이	20	9.9%
	1시간 30분~2시간 사이	14	6.93%
	2시간 이상	23	11.39%
사용하는 SNS 계정 수	1개	49	24.26%
	2개	77	38.12%
	3개	52	25.74%
	4개	22	10.89%
	5개 이상	2	0.99%
SNS 사용 이유	친교, 교제를 위해	34	16.83%
	재미, 즐거움을 위해	76	37.62%
	필요한 정보의 습득, 공유	32	15.84%
	사회이슈에 대한 의견표현, 공유	4	1.98%
	자기표현, 개인적 관심사 공유	24	11.88%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24	11.88%
	주변사람들이 많이 해서	5	2.48%
기타	3	1.49%	
SNS상의 정보에 대한 신뢰도	전혀 신뢰하지 않음	9	4.46%
	대체로 신뢰하지 않음	38	18.81%
	약간 신뢰하지 않음	62	30.69%
	보통	53	26.24%
	약간 신뢰함	31	15.53%
	대체로 신뢰함	9	4.46%
	매우 신뢰함	0	0%

## 4.2 측정모형 분석

### 4.2.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PLS를 통한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

하려면 설문에서 사용한 구성개념과 측정문항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해야 한다. 먼저 측정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평균분산추출(AVE), 크론

바흐 알파(Chronbach's Alpha) 계수, 그리고 복합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로 검증하였다(<표 2> 참고). 모든 구성개념의 AVE값은 0.6 이상으로 최소기준치인 0.5를(Fornell and Bookstein, 1982) 상회하였다. 모든 문항들을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다는 기본 가정을 가진 크론바흐 알파는 그 값이 0.7 이상일 때 안정적인 값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Nunnally and Bernstein, 1994), 모든 계수는 기준 이상이였다. 내적 일관성에 대한 전통적인 기준은 크론바흐 알파이지만, PLS에서는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복합신뢰도를 더 적합한 평가방법으로 본다(김장현 등, 2014). 복합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의 일반적인 해석방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데 0.7 이상일 때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한다(Bagozzi and Yi, 1988). 본 연구에서는 모든 구성개념의 복합신뢰도가 0.8을 상회했으므로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차적재량(cross loading)을 측정하였다(<부록> 1. 참고). 일반적으로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이 다른 문항들과 연관된 모든 적재량보다 커야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검증 측면에서 덜 보수적인

방법으로 고려된다(Hair *et al.*, 2011; 김장현 등, 2014). 확인결과, 모든 구성개념에 적재된 문항들의 값은 다른 구성개념에 적재된 값보다 높았다. 또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좀 더 보수적인 방법인 Fornell-Larcker 기준으로(Fornell and Larcker, 1981) 보면, 각 변수의 AVE값의 제곱근이 그 변수의 가장 높은 상관관계보다 크므로 본 연구의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부록> 2. 참고).

#### 4.2.2 구조모형 분석

PLS 분석에서 경로모델의 설명력은 분산설명력(Explained Variance)인  $R^2$  값과 GoF(Goodness of Fit)를 사용하여 알 수 있다. 모형이 적절한 통계적 검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R^2$ 값이 0.1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10% 이상의 설명력을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hin and Gopal, 1995; Falk and Miller, 1992).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작성)의  $R^2$ 값이 0.403이고,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유포)의  $R^2$ 값이 0.472로 본 연구의 구조 적합성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2> 참고). 또한 GoF를 통해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표 2> 신뢰성, 타당성 및 적합도 검증 결과

	AVE	Composite Reliability	R Square	Cronbachs Alpha
SNS 가해경험(유포)	0.754	0.902		0.837
SNS 가해경험(작성)	0.685	0.897		0.846
SNS 징벌행위(유포)	0.819	0.900		0.779
SNS 징벌행위(작성)	0.814	0.897		0.792
SNS 피해경험(유포)	0.776	0.912		0.885
SNS 피해경험(작성)	0.690	0.898		0.887
반응비용(유포)	0.768	0.869		0.703
반응비용(작성)	0.829	0.935		0.897
인지된 즐거움(유포)	0.817	0.931		0.888
인지된 즐거움(작성)	0.696	0.902		0.855
침해의도(유포)	0.824	0.904	0.472	0.787
침해의도(작성)	0.699	0.902	0.403	0.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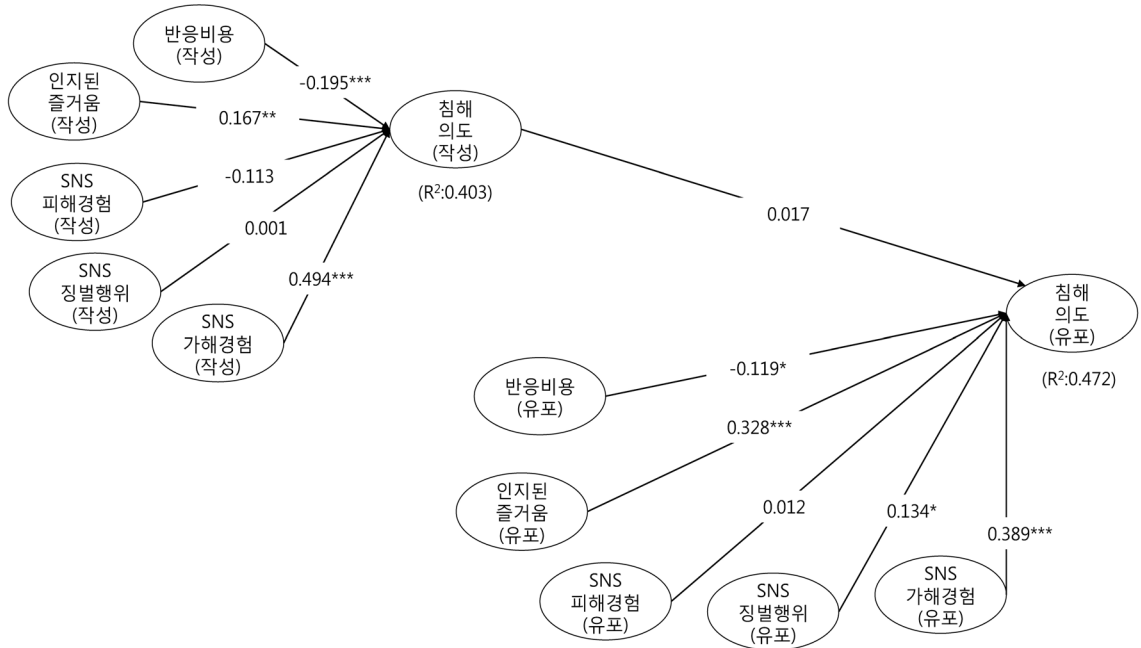
수도 있는데, 이는 AVE의 평균값과 R<sup>2</sup>의 평균값의 곱의 제곱근으로 나타낸다. 전체 적합도는 GoF가 0.36 이상일 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Tenenhaus and Vinzi, 2005; Wetzels et al., 2009), 본 연구는 0.383으로 높은 수준의 전체 적합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표 2> 참고).

4.2.3 가설검증

구성 개념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및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PLS 분석을 실시하였다. PLS Algorithm을 통해 구조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를 확인하였고, Bootstrap 방식을 이용해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총 11개의 가설 중 7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4개는 기각되었다. 반응비용은 작성과 유포의 침해의도 모두와 부적 관계를 맺어 H1a(경로계수: -0.195, p < 0.001)와 1b(경로계수 = -0.119, p <

0.05)는 채택되었다. 인지된 즐거움은 작성침해의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져 H2a(경로계수: 0.167, p < 0.01)는 채택된 반면, 징벌행위는 작성침해의도와는 관련이 없어 H4a는 기각되었다. 즐거움과 징벌행위는 유포침해의도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고, 이에 따라 H2b(경로계수: 0.328, p < 0.001)과 H4b(경로계수 = 0.134, p < 0.05)은 채택되었다. 즐거움과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는 사람들이 유포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성침해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유포를 하는 사람들과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피해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침해의도에 부정적 입장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피해경험과 침해의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고, H3a와 H3b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가해경험은 작성과 유포침해 모두와 정적 관계를 가져 H5a(경로계수 = 0.494, p < 0.001)와 H5b(경로계수 = 0.389, p < 0.001)는 채택되었다.



\*\*\* : p < 0.001, \*\* : p < 0.01, \* : p < 0.05.

<그림 2> 연구 모형의 가설 검정 결과

작성과 유포침해의도 둘 모두에서 가해경험은 가장 큰 경로계수 값을 가졌다. 이를 통해 SNS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가해자는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작성침해의도와 유포침해의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가 없어 H6는 기각되었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의도가 작성과 유포로 나뉠 수 있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더 적극적 침해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개인 정보 작성에 집중을 하지만, 그들은 본인이나 타인이 작성한 타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유포하는 데는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활발한 사람들은 즉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작성에는 오히려 소극적이기에 두 그룹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과 관련한 문항들(SNS 사용 계정수, 1회 접속시 사용시간, 성별)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에 특정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 문항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그리고 통제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모두 포함된 모델로 총 세 단계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제변수만을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포함시켰을 때 모델의 결정계수(R squared)가 작성침해의도에 0.018, 유포침해의도에 0.003으로 무의미한 값을 가졌다. 또한 통제변수 없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델에서의 결정계수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델에서의 결정계수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표 3> 참조). 그러므로 통제변수는 본 연구모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통제변수의 통제여부

		Step 1 (통제변수만)		Step 2 (통제변수 없이 독립변수만)		Step 3 (모든 변수를 포함)	
		침해의도		침해의도		침해의도	
		작성	유포	작성	유포	작성	유포
SNS 가해경험	유포				0.389***		0.399***
	작성			0.494***		0.504***	
SNS 징벌행위	유포				0.134*		0.130*
	작성			0.001		0.005	
SNS 피해경험	유포				0.012		0.024
	작성			-0.113		-0.106	
반응비용	유포				-0.119*		-0.110*
	작성			-0.195***		-0.197***	
인지된 즐거움	유포				0.328***		0.327***
	작성			0.167**		0.168**	
침해의도	작성				0.017		0.019
사용 계정수		0.100	-0.023			0.035	-0.024
1회 접속 시 사용시간		0.003	-0.041			-0.066	-0.070
성별		-0.100	0.000			0.046	0.004
<b>R<sup>2</sup></b>		<b>0.018</b>	<b>0.003</b>	<b>0.403</b>	<b>0.472</b>	<b>0.409</b>	<b>0.478</b>

\* 유의수준: \* p < 0.05, \*\* p < 0.01, \*\*\* p < 0.001.

## V. 결론 및 제언

SNS 사용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현상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이주형, 안순철, 2013), 그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과 인지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국인터넷진흥원, 2015b), 폭 넓은 연구와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원주연, 서동백, 2017). 또한 지금까지 피해자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았기에 가해자들이 어떤 의도를 갖게 되었는지, 그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하는 가해자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침해의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외적 동기요인인 반응비용은 가설이 검증되었다. 반응비용은 외적 동기요인으로 그 행위를 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 노력과 불편함을 포함한다. 발달된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오히려 외적 동기요인인 반응비용을 낮추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발달된 정보통신망은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내적 요인 중에서는 가해경험이 작성침해의도와 유포침해의도 둘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피해경험은 작성과 유포침해의도 모두에 관련이 없었고 인지된 즐거움은 작성과 유포침해의도 둘 모두에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징벌행위는 유포침해의도에만 약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징벌행위처럼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과거에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가해 경험이 있고 그 침해 행위 자체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의감에 의해 징벌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포하

는 사람들을 마치 SNS 프라이버시 침해 가해자와 똑같이 취급한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 이 연구를 통해 정의감에 의한 징벌적 개인 정보 작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유포행위의도에도 약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부류는 다른 부류라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정보 침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경험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사람들은 그 침해 행위 자체에 대한 즐거움으로 상습적으로 침해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효한 가설로부터 작성침해의도와 유포침해의도 모두에서 외적 동기요인보다는 내적 동기요인이 침해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작성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SNS 가해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약 0.5 단위로 작성침해의도가 증가하는 데에 반해 반응비용이 한 단위 증가하면 약 0.2의 단위로 작성침해의도가 감소한다. 작성침해의도에는 내적 동기요인인 SNS 가해경험이 외적 동기요인인 반응비용보다 두 배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포침해의도는 SNS 가해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약 0.4 단위씩, 인지된 즐거움이 한 단위씩 증가할 때마다 약 0.33 단위씩 증가한다. 반면 외적 동기요인인 반응비용은 한 단위 증가할 때, 유포침해의도를 0.12 단위 정도 감소시킨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작성침해의도와 유포침해의도 모두에 내적 동기요인인 SNS 가해경험과 인지된 즐거움이 외적 동기요인인 반응비용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큰 것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동기 요인 중에서도 내적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의 유형분류처럼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였다. 즉 개인정보 작성침해 의도와 유포침해 의도로 구

분을 한 결과, 작성침해 의도는 좀 더 적극적인 가해의도로 과거의 작성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반응비용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작성침해 의도를 줄일 수 있다. 반면 유포침해 의도는 과거의 유포경험에 영향을 받지만 유포 자체를 즐거움으로 인지하는 것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반응비용에는 작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응비용을 높인다면 개인정보 침해를 하기 위해 무분별한 정보가 만들어지거나 날조되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별 죄의식 없이 소문을 퍼뜨리는 식의 즐거움을 가지고 유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과 때로는 관련법조항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등으로 통해 사회적으로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SNS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침해행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뿐만이 아닌, 국가 간 비교나 연령별 비교 등과 같은 연구가 의미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는 동기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의 변수들을 추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모델을 설계하고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와 더 나아가 행위까지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사회적 요인, 혹은 배경이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숙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관련 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용욱, “여중생 폭행 가해자 신상털기·청와대 청원 ‘부글부글’”, SBS 뉴스, 2017.09.04, Available at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77138](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77138).
- [2] 김용훈, 류리나, 한성열, “도움행동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공감과 공정성이 도움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18권, 제3호, 2012, pp. 349-366.
- [3] 김운석, “개인정보보호 2.0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1, pp. 9-42.
- [4] 김은경,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청소년 지도학과, 2012.
- [5] 김일환, 성재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관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 2015, pp. 141-148.
- [6] 김장현, 심경환, 이철성, *PLS 구조모델의 이해 BASIC*, 피앤씨미디어, 고양, 2014.
- [7] 노동일, 정완, “사이버공간상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경희법학*, 제45권, 제4호, 2010, pp. 181-218.
- [8] 변영계, *교수학습방법이론의 이해*, 학지사, 서울, 2005.
- [9] 서동백, 김성재, “문제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SNS 중독과 게임 중독의 비교”,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19권, 제1호, 2017, pp. 25-48.
- [10] 성민경, 정연돈, “SNS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및 보호방안”,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제29권, 제5호, 2012, pp. 92-97.
- [11] 손민지, “국내 사이버폭력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Available at <http://www.kisa.or.kr/uploadfile/201306/201306121612000357.pdf>.
- [12] 손형섭,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이용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54권, 2014, pp. 1-34.
- [13] 안수미, 장재영, 김지동, 김범수, “SN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16권, 제2호, 2014, pp. 1-23.
- [14] 양성은, “사이버범죄의 동향과 이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Available at [https://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84&cPage=24&ST=T&SV=](https://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84&cPage=24&ST=T&SV=).

- [15] 원주연, 서동백, “SNS상에서 자기노출과 사이버불링”,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19권, 제1호, 2017, pp. 1-23.
- [16] 윤지섭, 마정미, 소선섭, 은성배,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Person Wide Web 기반 1인 미디어”,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제10권, 제5호, 2016, pp. 339-346.
- [17] 윤현석, 장규원, “개인정보침해의 처벌과 피해 구제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1호, 2014, pp. 115-139.
- [18] 이민정, ““여기가 어디일까요?” SNS사진 분석해 복수 계획한 20대 스토커男”, *중앙일보*, 2017.09.23, Available at <http://news.joins.com/article/21964082>.
- [19] 이웅규, “정보기술 사용에서의 전유가 내재적/외재적 동기 및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영향: 블로그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경영과학회지*, 제33권, 제1호, 2008, pp. 131-146.
- [20] 이웅규, 권정일, “온라인 게임의 전유가 게임 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역할수행게임을 중심으로”, *경영정보학연구*, 제16권, 제4호, 2006, pp. 103-119.
- [21] 이정기, 우형진, “사이버 언어폭력 의도에 관한 연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행위 인식, 연령,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7권, 제1호, 2010, pp. 215-253.
- [22] 이주형, 안순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1권, 2013, pp. 133-157.
- [23] 이진규, “SNS에서의 Privacy 침해 위협”, *정보과학회지*, 제29권, 제11호, 2011, pp. 67-72.
- [24] 정현목, “YG엔터 “지드래곤 사생활 침해범위, 법적 대응 나선다””, *중앙일보*, 2016.09.21, Available at <http://news.joins.com/article/20614605>.
- [25] 조명근, 이환수, “메타분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과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9호, 2017, pp. 1-14.
- [26] 조성은, 한은영, 석지미, 김도훈, *소셜미디어의 이용 유형과 사회적 순기능·역기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진천, 2014.
- [27] 지법석, 판류, 이상철, 서영호, “정보품질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행위: 건강심리이론 관점을 중심으로”, *품질경영학회지*, 제39권, 제3호, 2011, pp. 432-443.
- [28] 한국방송통신심의회위원회, “2012 사이버권리 침해 대응안내서”, 2012, Available at [http://www.kocsc.or.kr/02\\_infoCenter/Edu\\_View.php?ko\\_board=edu&ba\\_id=5958](http://www.kocsc.or.kr/02_infoCenter/Edu_View.php?ko_board=edu&ba_id=5958).
- [29]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11.
- [30]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15a, Available at <http://isis.kisa.or.kr/board/index.jsp?pageId=040100&bbId=7&itemId=806&pageIndex=3>.
- [3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개인부문 최종보고서, 2015b, Available at <http://isis.kisa.or.kr/board/index.jsp?pageId=060200&bbId=15&itemId=54&pageIndex=1>.
- [3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년 정보문화실태조사”, 2011, Available at [file:///C:/Users/%EC%97%90%EB%8D%B4/Downloads/2011%EB%85%84\\_%EC%A0%95%EB%B3%B4%EB%AC%B8%ED%99%94%EC%8B%A4%ED%83%9C%EC%A1%B0%EC%82%AC\\_%EB%B3%B4%EA%B3%A0%EC%84%9C\(%EC%B5%9C%EC%A2%85\)%20\(1\).pdf](file:///C:/Users/%EC%97%90%EB%8D%B4/Downloads/2011%EB%85%84_%EC%A0%95%EB%B3%B4%EB%AC%B8%ED%99%94%EC%8B%A4%ED%83%9C%EC%A1%B0%EC%82%AC_%EB%B3%B4%EA%B3%A0%EC%84%9C(%EC%B5%9C%EC%A2%85)%20(1).pdf).
- [33] 허진성, “SNS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2010, pp. 75-103.
- [34] 형사처벌규정,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Available at <https://privacy.kisa.or.kr/kor/advice/advice02.jsp>.
- [35] Atkinson, W. J.,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Van Norstrand, Princeton, NJ, 1964.
- [36] Bagozzi, R. P. and Y. Yi,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1, No.1, 1988, pp. 74-94.



- [37] Bansal, G., M. F. Zahedi, and D. Gefen, "The impact of personal dispositions on information sensitivity, privacy concern and trust in disclosing health information online", *Decision Support Systems*, Vol.49, 2010, pp. 138-150.
- [38] Baston, D. C., M. J. Darley, and S. J. Coke, "Altruism and human kindness: Internal and external determinations of helping behavior", in Pervin, L., Lewis, M., *Perspectives in Interpersonal Psychology*, Plenum Press, New York, 1978.
- [39] Childers, L. T., L. C. Carr, J. Peck, and S. Carson, "Hedonic and utilitarian motivations for online retail shopping behavior", *Journal of Retailing*, Vol.77, No.4, 2001, pp. 511-535.
- [40] Chin, W. W. and A. Gopal, "Adoption intention in GSS: Relative importance of beliefs", *ACM SIGMIS Database*, Vol.26, No.2-3, 1995, pp. 42-64.
- [41] Davis, D. F., P. R. Bagozzi, and R. P. Warshaw,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 to use computers in the workpla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22, No.14, 1992, pp. 1111-1132.
- [42] Davis, D. F., D. Fred, P. R. Bagozzi, and R. P. Warshaw, "User acceptance of computer technology: A comparison of two theoretical models", *Management Science*, Vol.35, No.8, 1989, pp. 982-1003.
- [43] Deci, L. E. and M. R. Ryan,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Vol.11, No.4, 2000, pp. 227-268.
- [44] Deci, L. E. and M. R. Ryan,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19, No.2, 1985, pp. 109-134.
- [45] Deci, L. E. and M. R. Ryan, "The support of autonomy and the control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3, No.6, 1987, pp. 1024-1037.
- [46] Deci, L. E., *Intrinsic Motivation*, Plenum Press, New York, 1975.
- [47] Eisenberg, N. and P. Miller,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Vol.101, 1987, pp. 91-119.
- [48] Falk, F. R. and B. N. Miller, *A Primer for Soft Modeling*, University of Akron Press, Akron: OH, 1992.
- [49] Fishbein, M. and I.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iley, Massachusetts, 1975.
- [50] Fornell, C. and L. F. Bookstein, "Two structural equation models: LISREL and PLS applied to consumer exit-voice theor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9, No.4, 1982, pp. 440-452.
- [51] Fornell, C. and F. D.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1981, pp. 39-50.
- [52] Gottfried, E. A.,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in you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2, No.3, 1990, pp. 525-538.
- [53] Gross, R. and A. Acquisti, "Information Revelation and Privacy in Online Social Networks (The Facebook case)", 2005, Available at <http://www.heinz.cmu.edu/~Acquisti/Papers/Privacy-Facebook-Gross-Acquisti.Pdf>.
- [54] Gupta, S. and H. W. Kim, "The moderating effect of transaction experience on the decision calculus in on-line repurchase",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Vol.12, No.1, 2007, pp. 127-158.
- [55] Hair, F. J., M. C. Ringle, and M. Sarstedt, "PLS-SEM: Indeed a silver bulle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Vol.19, 2011, pp. 139-151.

- [56] Heider, F.,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Wiley, New York, 1958.
- [57] Hidi, S., "Interest and its contribution as a mental resource for learning",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60, No.4, 1990, pp. 549-571.
- [58] Hoffman, L. M., *Empathy, Its Development and Prosocial Implication*,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1977.
- [59] Ifinedo, P., "Understanding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olicy compliance: An integr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Computers & Security*, Vol.31, No.1, 2012, pp. 83-95.
- [60] Kowalski, R., S. Limber, and P. Agatston, *Cyber-Bullying: Bullying in the Digital age*, Blackwell Publishing, Oxford, 2008.
- [61] Kraus, J. S., "Attitudes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A meta analysis of the emperical literat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1, 1995, pp. 58-75.
- [62] Krebs, D., "Empathy and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2, 1975, pp. 1134-1146.
- [63] Lepper, M. R. and D. Greene, *The Hidden Costs of Reward: New Perspectives on the Psychology of Human Motivation*, Lawrence Erlbaum, Hillsdale, NJ, 1978.
- [64] Lin, K. and H. Lu, "Why people use social networking sites: An empirical study integrating network externalities and motivation theor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7, 2011, pp. 1152-1161.
- [65] Malone, W. T. and R. M. Lepper, "Makng learning fun: A taxonomy of intrinsic motivations for learning", *Attitude, Learning, and Instruction*, Vol.3, 1987, pp. 223-253.
- [66] Miners, Z., IT World from IDG, (한국 IDG), 2014, Available at <http://www.itworld.co.kr/news/88745?page=0,1>.
- [67] Nunnally, C. J. and H. I. Bernstein,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New York, 1994.
- [68] Orlikowski, W. J. and D. Robey,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structuring of organization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2, No.2, 1991, pp. 143-169.
- [69] Rogers, W. R., "Cognitive and physiological processes in frea-based attitude change: A revised theory of protection motivation", in Cacioppo, J. T., Petty, R. E. (eds.), *Social Psychophysiology: A Sourcebook*, Guilford Publications, New York, 1983, pp. 153-176.
- [70] Rosenstock, M. I., J. V. Strecher, and H. M. Becker, *The Health Belief Model and HIV Risk Behavior Change*, Plenum Press, New York, 1994.
- [71] Smith, H. J., T. Dinev, and H. Xu, "Information privacy research: An interdisiplinary review", *MIS Quarterly*, Vol.35, No.4, 2011, pp. 989-1015.
- [72] Tenenhaus, M. and E. V. Vinzi, "PLS regression, PLS path modeling and generalized procrustean analysis: A combined approach for multiblock analysis", *Journal of Chemometrics*, Vol.19, No.3, 2005, pp. 145-153.
- [73] Venkatesh, V., "Determinants of perceived ease of use: Integrating control, intrinsic motivation, and emotion in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1, No.4, 2000, pp. 342-365.
- [74] Wentzel, R. K., L. Filisetti, and L. Looney, "Adolecent prosocial behavior: The role of self-processes and contextual cues", *Child Development*, Vol.78, 2007, pp. 895-910.
- [75] Westin, F. A., "Privacy and freedom", *Washington and Lee Law Review*, Vol.25, No.1, 1968.
- [76] Wetzels, M., G. Odekerken-Schröder, and C. Oppenvan, "Using PLS path modeling for assessing hierarchical construct models: Guidelines and emperical illustration", *MIS Quarterly*, Vol.33, No.1, 2009, pp. 177-195.

## 〈부 록〉

## 1. 측정항목별 교차적재량 측정

	SNS 가해경험 (유포)	SNS 가해경험 (작성)	SNS 징벌행위 (유포)	SNS 징벌행위 (작성)	SNS 피해경험 (유포)	SNS 피해경험 (작성)	반응비용 (유포)	반응비용 (작성)	인지된 즐거움 (유포)	인지된 즐거움 (작성)	침해의도 (유포)	침해의도 (작성)
BLA-유-1	0.0911	0.1784	<b>0.913</b>	0.7801	-0.0198	-0.033	-0.1063	-0.1213	0.1859	0.2357	0.2375	0.126
BLA-유-2	0.1008	0.177	<b>0.8967</b>	0.8034	0.0435	0.0141	-0.1109	-0.1938	0.1401	0.2701	0.2188	0.2322
BLA-작-1	0.0642	0.1322	0.8451	<b>0.8408</b>	0.0459	0.0309	-0.1331	-0.1372	0.1562	0.2494	0.1781	0.093
BLA-작-2	0.1575	0.1723	0.7825	<b>0.9601</b>	0.0033	-0.0079	-0.1778	-0.131	0.1457	0.283	0.1688	0.1802
ENJ-유-1	0.4654	0.2897	0.1468	0.1333	0.028	0.1058	-0.0629	0.0025	<b>0.9078</b>	0.3637	0.4835	0.2553
ENJ-유-2	0.4538	0.2764	0.1605	0.1176	-0.0029	0.0911	-0.0983	-0.0565	<b>0.9196</b>	0.3702	0.5386	0.2869
ENJ-유-3	0.4654	0.2933	0.1832	0.1904	0.0595	0.1355	-0.056	-0.0278	<b>0.8844</b>	0.3547	0.5102	0.2772
ENJ-작-1	0.2944	0.4973	0.283	0.2975	0.0772	0.1703	-0.1432	-0.2276	0.3545	<b>0.8229</b>	0.2999	0.418
ENJ-작-2	0.152	0.4297	0.1991	0.2287	0.0602	0.149	-0.0916	-0.2847	0.2991	<b>0.8668</b>	0.1168	0.4147
ENJ-작-3	0.1763	0.3702	0.2083	0.2245	0.0592	0.1451	-0.0821	-0.2294	0.2804	<b>0.8367</b>	0.134	0.336
ENJ-작-4	0.2749	0.4936	0.2343	0.2294	-0.0192	0.1653	-0.0805	-0.2361	0.3988	<b>0.8097</b>	0.3378	0.3913
EXB-유-1	0.0279	0.2273	-0.0296	-0.0254	<b>0.9418</b>	0.509	-0.0711	-0.0722	0.0115	0.025	0.0578	0.0824
EXB-유-2	0.0597	0.2699	-0.0325	-0.0388	<b>0.7997</b>	0.5257	0.0619	0.0097	0.005	0.0248	0.0005	0.0249
EXB-유-3	0.082	0.2758	0.0644	0.0757	<b>0.896</b>	0.5345	-0.0834	-0.0733	0.0505	0.0817	0.0438	0.056
EXB-작-1	0.0943	0.2972	-0.0445	-0.0114	0.6594	<b>0.7857</b>	0.0079	-0.0142	0.081	0.1487	0.0938	0.0274
EXB-작-2	0.0811	0.2478	-0.0614	-0.0247	0.6022	<b>0.8126</b>	-0.0108	0.0081	0.0991	0.117	0.071	0.0142
EXB-작-3	0.0852	0.3123	0.0039	0.0219	0.5169	<b>0.7499</b>	0.0008	0.0838	0.0132	0.1601	0.0595	0.0344
EXB-작-4	0.2024	0.3632	-0.0001	0.0077	0.4458	<b>0.9591</b>	0.0746	0.0778	0.1438	0.1808	0.1128	0.117
EXI-유-1	<b>0.8692</b>	0.3778	0.0815	0.1139	0.0673	0.1753	-0.0817	0.0113	0.4516	0.2538	0.5085	0.2049
EXI-유-2	<b>0.8764</b>	0.3219	0.0948	0.1084	0.0099	0.1177	0.0413	0.0843	0.4282	0.1682	0.5187	0.1431
EXI-유-3	<b>0.8589</b>	0.4159	0.0996	0.1348	0.0695	0.1705	-0.0994	0.0031	0.4499	0.2882	0.4855	0.2724
EXI-작-1	0.3803	<b>0.8138</b>	0.2242	0.2001	0.1917	0.2655	-0.0398	-0.1469	0.2519	0.4669	0.3664	0.4532
EXI-작-2	0.3209	<b>0.8702</b>	0.1495	0.16	0.2707	0.3787	0.0062	-0.0839	0.2373	0.4917	0.2802	0.4483
EXI-작-3	0.3117	<b>0.8284</b>	0.1054	0.0847	0.2358	0.2639	0.0281	0.0118	0.2171	0.3961	0.2634	0.4664
EXI-작-4	0.3971	<b>0.7956</b>	0.171	0.1283	0.1945	0.3461	-0.01	-0.0881	0.3366	0.4353	0.4013	0.4814
ITT-유-1	0.5236	0.3968	0.2765	0.2204	0.0399	0.1133	-0.1896	0.0159	0.5289	0.2751	<b>0.9135</b>	0.2293
ITT-유-2	0.532	0.3232	0.1792	0.1162	0.0623	0.0858	-0.1438	-0.0591	0.4982	0.2129	<b>0.9022</b>	0.2228
ITT-작-1	0.2517	0.4417	0.1616	0.0994	-0.0102	0.0256	-0.0773	-0.2532	0.2814	0.4376	0.2162	<b>0.8041</b>
ITT-작-2	0.1893	0.5139	0.1861	0.1894	0.1056	0.1028	-0.1055	-0.2851	0.2519	0.4296	0.2026	<b>0.8967</b>
ITT-작-3	0.129	0.515	0.15	0.1093	0.1099	0.0602	-0.1359	-0.2466	0.2187	0.376	0.1889	<b>0.8646</b>
ITT-작-4	0.2314	0.389	0.1552	0.1499	0.0444	0.1287	-0.05	-0.2044	0.2665	0.3221	0.2323	<b>0.7718</b>
RC-유-1	-0.0734	-0.0056	-0.0951	-0.1445	-0.0424	0.0876	<b>0.9096</b>	0.2587	-0.0883	-0.1018	-0.1802	-0.0965
RC-유-2	-0.01	-0.002	-0.119	-0.1701	-0.111	-0.0094	<b>0.8422</b>	0.1448	-0.0489	-0.1118	-0.1389	-0.1028
RC-작-1	0.0162	-0.0968	-0.1464	-0.122	-0.0706	0.0425	0.2359	<b>0.9329</b>	-0.0281	-0.2732	-0.0204	-0.2678
RC-작-2	0.0299	-0.0984	-0.1488	-0.131	-0.0834	0.0564	0.1787	<b>0.9467</b>	-0.0275	-0.2728	-0.0068	-0.3148
RC-작-3	0.0674	-0.0492	-0.1848	-0.1475	-0.0562	0.0965	0.2508	<b>0.8479</b>	-0.0311	-0.2587	-0.041	-0.2178

\*BLA: SNS 징벌행위, \*ENJ: 인지된 즐거움, \*EXB: SNS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경험, \*EXI: SNS 프라이버시 침해 가해경험, \*ITT: 침해의도, \*RC: 반응비용.

2. AVE 제공근 값 및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

	SNS 가해경험		SNS 징벌행위		SNS 피해경험		반응비용		인지된 즐거움		침해의도	
	유포	작성	유포	작성	유포	작성	유포	작성	유포	작성	유포	작성
SNS 가해경험(유포)	<b>0.8682</b>											
SNS 가해경험(작성)	0.4271	<b>0.8275</b>										
SNS 징벌행위(유포)	0.1058	0.1963	<b>0.9049</b>									
SNS 징벌행위(작성)	0.1367	0.1725	0.8742	<b>0.9024</b>								
SNS 피해경험(유포)	0.0557	0.2695	0.0116	0.0194	<b>0.8811</b>							
SNS 피해경험(작성)	0.1774	0.3794	-0.0115	0.0058	0.5644	<b>0.8307</b>						
반응비용(유포)	-0.0520	-0.0046	-0.1199	-0.1768	-0.0821	0.0516	<b>0.8766</b>					
반응비용(작성)	0.0388	-0.0923	-0.1724	-0.1448	-0.0784	0.0685	0.2376	<b>0.9102</b>				
인지된 즐거움(유포)	0.5102	0.3166	0.1811	0.1623	0.0306	0.1222	-0.0808	-0.0313	<b>0.9040</b>			
인지된 즐거움(작성)	0.2712	0.5406	0.2786	0.2954	0.0535	0.1893	-0.1206	-0.2940	0.4015	<b>0.8343</b>		
침해의도(유포)	0.5811	0.3976	0.2525	0.1870	0.0559	0.1101	-0.1843	-0.0226	0.5660	0.2697	<b>0.9079</b>	
침해의도(작성)	0.2365	0.5598	0.1955	0.1637	0.0768	0.0925	-0.1127	-0.2979	0.3027	0.4708	0.2490	<b>0.8358</b>

\* 굵게 표시된 부분은 AVE의 제공근 값임.

3. 측정문항

구성개념	측정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대	최소	참고 문헌	
인지된 즐거움	작성1	SNS에서 타인의 정보를 글/댓글로 쓰는 일은 흥미롭다.	2.8	1.528	7	1	안수미 등 (2014)
	작성2	SNS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정보를 글/댓글로 쓰는 일은 흥미롭다.	2.28	1.361	7	1	
	작성3	SNS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타인의 정보를 글/댓글로 쓰는 일은 흥미롭다.	2.2	1.421	7	1	
	작성4	SNS에서 장난으로 타인에 대한 정보를 글/댓글로 쓰는 일은 흥미롭다.	2.86	1.712	7	1	
	유포1	SNS에서 타인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에 공유버튼을 누르는 일은 즐겁다.	3.83	1.782	7	1	
	유포2	SNS에서 타인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에 주변사람을 태그하는 일은 즐겁다.	3.82	1.724	7	1	
	유포3	SNS에 올려진 타인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을 다른 SNS나 매체(예: 카톡, 이메일, 다른 SNS나 다른 사이트)로 공유하는 일은 즐겁다.	4.06	1.695	7	1	
반응 비용	작성1	SNS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정보를 글/댓글로 쓰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4	1.883	7	1	지법석 등 (2011)
	작성2	SNS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타인의 정보를 글/댓글로 쓰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3.85	2.004	7	1	
	작성3	SNS에서 장난으로 타인에 대한 정보를 글/댓글로 쓰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3.38	1.892	7	1	
	유포1	SNS에서 타인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에 공유버튼을 누르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2.16	1.195	7	1	
	유포2	SNS에서 타인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에 주변사람을 태그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2.2	1.317	7	1	

구성개념		측정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대	최소	참고 문헌
징벌 행위	작성1	나는 SNS에서, 사회에 부정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글/댓글로 쓴다.	5.31	1.363	7	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작성2	나는 SNS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부도덕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의 정보를 글/댓글로 쓴다.	5.17	1.393	7	1	
	유포1	나는 SNS에서, 사회에 부정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내 친구를 태그한다.	5.34	1.351	7	1	
	유포2	나는 SNS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부도덕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내 친구를 태그한다.	5.22	1.397	7	1	
피해 경험	작성1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 정보가 SNS에 글/댓글로 올라온 적이 있다.	2.95	1.696	7	1	김은경 (2012)
	작성2	내 허락 없이 내 정보가 SNS에 글/댓글로 올라온 적이 있다.	2.91	1.634	7	1	
	작성3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내 정보가 SNS에 글/댓글로 올라온 적이 있다.	2.55	1.469	7	1	
	작성4	타인의 장난으로 내 정보가 SNS에 글/댓글로 올라온 적이 있다.	2.82	1.666	7	1	
	유포1	내가 작성한 내 정보가 SNS상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화나거나 불쾌했던 적이 있다.	2.95	1.562	7	1	
	유포2	내 작성하지 않은 내 정보가 SNS상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화나거나 불쾌했던 적이 있다.	2.79	1.472	7	1	
	유포3	내 동의 없이 내 정보가 SNS상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화나거나 불쾌했던 적이 있다.	2.98	1.622	7	1	
가해 경험	작성1	SNS에서 타인에 대한 정보를 글/댓글로 써본 적이 있다.	2.56	1.701	7	1	김은경 (2012)
	작성2	SNS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정보를 글/댓글로 써본 적이 있다.	2.05	1.469	7	1	
	작성3	SNS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타인의 정보를 글/댓글로 써본 적이 있다.	1.81	1.363	6	1	
	작성4	SNS에서 장난으로 타인에 대한 정보를 글/댓글로 써본 적이 있다.	2.22	1.579	7	1	
	유포1	SNS에서 타인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에 공유버튼을 눌러본 적이 있다.	3.14	1.766	7	1	
	유포2	SNS에서 타인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에 주변사람을 태그한 적이 있다.	3.19	1.786	7	1	
	유포3	SNS에 올려진 타인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을 다른 SNS나 매체(예: 카톡, 이메일, 다른 SNS나 다른 사이트)로 공유한 적이 있다.	2.79	1.642	7	1	
침해 의도	작성1	나는 향후, SNS에서 타인에 대한 정보를 글/댓글로 쓰게 될 수도 있다.	2.64	1.549	7	1	이정기, 우형진 (2010) 안수미 등 (2014)
	작성2	나는 향후, SNS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정보를 글/댓글로 쓰게 될 수도 있다.	2.05	1.385	7	1	
	작성3	나는 향후, SNS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타인의 정보를 글/댓글로 쓰게 될 수도 있다.	1.85	1.249	7	1	
	작성4	나는 향후, SNS에서 장난으로 타인에 대한 정보를 글/댓글로 쓰게 될 수도 있다.	2.33	1.562	7	1	
	유포1	나는 향후, SNS에서 타인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에 공유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	3.81	1.763	7	1	
	유포2	나는 향후, SNS에서 타인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글에 주변사람을 태그할 수도 있다.	3.56	1.929	7	1	

## Privacy Intrusion Intention on SNS: From Perspective of Intruders

Eden Lee\* · Sanghui Kim\*\* · DongBack Seo\*\*\*

### Abstract

SNS enables people to easily connect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People share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SNS. Users are concerned about their privacies, but they unconsciously or consciously disclose their personal information on SNS to interact with others. The privacy of a self-disclosed person can be intruded by others. A person can write, fabricate, or distribute a story using the disclosed information of another even without obtaining consent from the information owner. Many studies focused on privacy intrusion,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a victim. However, only a few studies examined privacy intr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truder on SNS.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ntion of privacy intr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truder on SNS and the factors that affect intention. Privacy intrusion intentions are categorized into two types. The first type is intrusion of privacy by writing one's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obtaining consent from the information owner, whereas the other type pertains to intrusion of privacy by distributing one's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obtaining consent from the information owner. A research model is developed based on motivation theory to identify how these factors affect these two types of privacy intrusion intentions on SNS. From the perspective of motivation theory, we draw one extrinsic motivational factor (response cost) and four intrinsic motivational factors, namely, perceived enjoyment, experience of being intruded on privacy, experience of invading someone's privacy, and punishment behavior. After analyzing 202survey data, we conclude that different factors affect these two types of privacy intrusion intention. However, no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two types of privacy intrusion intention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indings is that the experience of privacy intrusion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related to the two types of privacy intrusion intentions. The findings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on privacy by suggesting two types of privacy intrusion intentions on SNS and identifying their antece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truder. Practitioners can also use the findings to develop SNS applications that can improve protection of user privacies and legitimize proper regulations relevant to online privacy.

**Keywords:** *Privacy, Intrusion Intention, Motivation Theory, SNS*

---

\* GLOMIS (Global Studies on Management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ollege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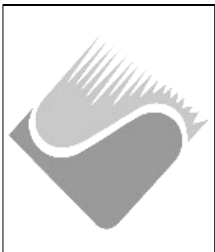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 저 자 소 개 ◎



**이 에 덴 (led02280228@gmail.com)**

현재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영정보과학 협동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SNS, Virtual self, Virtual world, Communication, Behavior이다.



**김 상 희 (li\_sweet\_il@naver.com)**

충북대학교 대학원 정보보호경영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보호, 정보보안이다.



**서 동 백 (dseo@chungbuk.ac.kr)**

DONGBACK SEO earned her Doctor of Philosophy and Masters of Science i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Prior to pursuing the Ph.D. program, she worked as a software engineer in a wireless communications firm and as a small business owner. Her publications include three books, recently published Evolution and Standardization of Mobile Communications Technology, as well as a class manual and several chapters. Her papers have been published in many journals (e.g., Journal of AI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Communications of the ACM, Telecommunications Policy, etc.) and conference proceedings (e.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etc.).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he areas of digital innovation, adoption of digital-enabled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standards strategy, business convergence, and analysis of competitive dynamics in rapidly changing industries. She is currently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BNU), Republic of Korea.

논문접수일 : 2018년 0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3월 13일

1차 수정일 : 2018년 03월 04일